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資料 篇 (3)

齒協歷史編纂委員會 提供

朝齒 第2回 定期總會

- ◇…… 朝鮮齒科醫師會 第2回 定期總會는(1947) 5月 19日 서울醫大講堂에서……◇
- ◇…… 開催, 1日間延長하여 20日까지 續會中 몇번이나 流會의 危機에 直面 ……◇
- ◇……하여 波瀾曲折을 겪었었다. ……◇

▲ 會 順 : 國旗敬禮, 愛國歌奉唱, 開會宣言, 開會辭, 各部經過報告, 醫齒一元化研究委員經過報告, 議長選舉, 現委員總辭任宣言, 議案(가) 醫齒一元化에 關한件 (나) 會名稱改定에 關한件 (다) 會則修正에 關한件 (라) 豫算案審議의件 (마) 齒科醫療用金에 關한件 (바) 口腔衛生週間行事的件 (사) 特別市齒科醫師會統一에 關한件 (아) 其他事項 (자) 委員改選, 萬歲三唱 閉會辭.

定刻보다 늦게 上午 11時에 申仁澈總務司會로 國旗敬禮, 李有慶先唱으로 愛國歌奉唱이 있는 다음

▲ 委 員 · 代議員點名

申仁澈委員, 代議員點名을 하기전에 서울, 京城兩齒科醫師會 代議員에 對하여 地方代議員의 諒解를 얻고자 한다.

前提하고 그 說明이 시작되려 할때

林榮俊 : 그 說明을 들을 必要 없으니 프로그램대로 速히 進行하라는 소리에 서울시齒科醫師會 代議員도 呼應하여 場內空氣가 極히 森嚴한 가운데 委員, 代議員點名이 進行되어 京城齒科醫師會 代議員의 點名이 있자

文箕玉 : 朝齒中央委員會 席上에서 京城齒科醫師會 加

入을 承認한일 없다. 朴委員長의 言明과 申總務의 謝過까지 있었는데 京城齒科醫師會 代議員을 어떻게 選任하였는가. 會則에 依해서 代議員을 認定할 수 없다는 緊急發言에 李迥柱, 金然浩등이 <朝齒傘下에 京城齒科醫師會는 存在하지 않는다. 代議員資格없는 사람의 點名은 할 수 없을것이니 取消하라>고 嚴肅히 要求하니 洪思根, 曹珮등은 <代議員點名을 全部한 後에 資格審查를 하자>고 提議하였으나 不應하는 形勢가 壓倒的이므로 議場이 騷亂.

朴明鎮 : 요건 中央委員會에서 京城齒科醫師會 加入을 取消하였으나 이 席上에서 그 資格이 論議될 것이다. 朝鮮齒科醫師會 構成이 道單位로 되어 있는 것이 嚴肅한 事實이지만 行政機構變更에 따라서 서울의 두 齒科醫師會를 地域的으로 無視할 수 없는 關係上 다 認定하게 된 것이다. 이런것은 些少한 問題로 생각하니 圓滿한 協調있기를 바란다.

文箕玉 : 些少하게, 생각하니까 分裂이 되었다. 圓滿히 하자면 이 席上에서 먼저 中央委員會를 1 開催하여 代議員의 資格을 審査하자.

朴明鎮 : 實際的으로 볼때 朝齒構成에 各道支部는 있

으나 特別市의 文句는 없다.

林榮俊: 서울에 두 齒科醫師會가 存在하는 것을 容認한다면 單一的인 朝齒도 將次 들어 되지 않을 것을 누가 斷言하겠는가.

朴明鎮: 過去의 齒科醫師會는 法的根據를 가진 半統制機關이었는데 解放後 法的根據를 갖지 않은 關係上 名稱 其他를 拘束할 수 없다. 이 團體가 齒界를 爲한 綜合機關이 되려면 여러분의 協調가 必要하다.

趙昊衍: 學會結果로 볼때 <한림>의 偉大性을 切實히 느꼈다. 오늘 京城齒科醫師會니 서울齒科醫師會니 떠들고 싸움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圓滿히 協力하다.

李適柱: 朴委員長은 至當한 말을 하였다. 그러나 京城齒科醫師會 代議員名簿를 受理한 것은 委員長의 獨斷이 아닌가.

李有慶: 그렇지 않다고 應酬한 後 文箕玉, 金然浩兩人對 朴明鎮間에 論戰이 있는데다음 崔羲鍾, 林澤龍 등이 代議員點名 繼續할 것을 動議, 再請이 있어서 委員, 代議員全部를 點名.

林榮俊: 이번 總會에는 來賓이 한분도 없으니 웬일인가. 그리고 地方代議員 座席이 不足하여 뒤로 물러있게 한 것은 遺憾이다.

崔海雲(大邱): 地方代議員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感謝하나 座席은 어떻게든지 彼此참아가지고 對立的인 不穩한 空氣를 一掃하라. 京齒니 서울齒니 하는 것을 來賓이 없어서 못보게 된것은 千萬多幸이다.

李適柱: 對立은 옳지 않다. 對立의 障害를 除去하고 明朗化를 爲해서 座談會를 하자.

高漢俊(全州): 和睦한 가운데서 서로 讓步하여 圓滿히 進行함으로써 地方에서 온 우리가 膳賜 보따리를 가지고 가도록 協助함을 바란다.

李有慶: 서울齒, 京齒問題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法에 依해서 作定되기 위하여 討議되는 것인데 싸움이란 말은 듣기 좋지않다.

盧基燮(木浦): 和睦을 떠나서 떠드는 것은 싸움하는 것 같이 보인다. 주먹질하는 것만이 싸움이 아니라 말도 이처럼 되면 싸움이다.

林榮俊: 朝齒로서 서울市 齒科醫師會를 認定하느냐 京城齒科醫師會를 認定하느냐 둘중의 하나를 委員長의 勇斷으로 決定하라.

劉時仲(群山): 이처럼 紛糾를 거듭하는 것은 遺憾이다. 앞으로 큰 問題가 많으니 時間을 虛費 말고 秩序있게 議事를 進行하도록 빨리 混亂을 收拾하라.

金昌圭(釜山): 三千萬同胞가 期待하던 美蘇共委를 앞두고 希望의 自主獨立이 云謂되는 이때 偶然히 朝齒

總會를 開催하게 된것이 有意義한 일인데 이렇게 混亂한 것은 不滿이다. 이會舍도 建國事業의 하나인즉 圓滿히 會를 進行하도록 要望한다.

金性度(順天): 京齒加入問題로 朝齒中央委員會席上에서 申總務의 謝過가 있었다. 흥분을 떠나서 良心的 批判이 必要하다. 會則에 準據한다면 代議員問題는 解決될 것이다. 京齒代議員이 參席할 수 있고 없는 것을 舉手可決하자.

洪思根: 京齒側에는 發言權이 없다.

朴明鎮: 서울, 京城으로 甲論乙駁은 不必要하니 道代議員의 諒解를 바란다.

李有慶: 京城에 2百餘名會員이 있는 現實을 無視할 수 없다. 서울代議員도 勿論 出席할 수 있을 것이다.

林榮均(仁川): 京畿道齒科醫師會와 서울市齒科醫師會가 分立되어 있는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나 京城齒科醫師會는 朝齒로서 承認한 일없다.

朴明鎮: 朝齒構成이 道單位로 되어 있는 마치 過去에 京畿道齒科醫師會로 부터 서울이 分立된 것이 問題다.

金溶瑤: 서울이 特別市로 됨에 따라 서울市齒科醫師會가 道水準으로 된것은 嚴然한 事實이다. 分裂分子들이 京城齒科醫師會를 組織한 것은 委員長自身이 잘 아는 事實이니 問題處理는 簡單할 것이다(울소, 울소, 소리 議場을 振動)

朴明鎮: 言聲을 높인다고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것이다. 代議員任期는 1年으로 되어 있으니 今年에는 새로 選出된 代議員이 參席하게 되는 것이다. 이 點을 誤解하지 말라.

崔羲鍾: 代議員資格은 委員長自身이 規定못한다. 多數意見으로 問題를 解決하자(울소, 울소 소리)

朴明鎮: 이會가 正式으로 進行되기 까지 委員長으로서 答辯함에 不過하다. 進行上 各道代表의 意見을 要請하는 바이다.

金性度(順天): 秩序있게 進行하자면 會則에 依해서 서울齒科醫師會와 京城齒科醫師會의 資格을 多數決로 定하자.

朴明鎮: 會則에 依한다면 道名稱의 齒科醫師會代議員만이 參席할 資格이 있다.

洪思根: 朴委員長이 京齒所屬會員으로 말한다면 나는 서울市齒科醫師會를 爲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金然浩: 朴委員長의 말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京城齒科醫師會 代議員의 座席을 設置한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는말로 解釋할 수밖에 없다. 朝齒會則附則에 <本會則에 未備한 點은 通常慣例에 依함>이라는 條項에 비추어 서울市 齒科醫師會 代議員의 參席은 當然하다.

朴明鎮：個人的人權을 無視하는 言辭는 옳지 않다. 이 問題는 議長을 選定한 뒤에 解決하자.

李有慶：그것은 委員長이 責任回避하는 말이다. 이 問題만은 解決하다.

林榮俊：兩會를 調停하는 것이 朝齒의 任務다. 朝齒로서 勇斷을 가지고 京齒, 서울齒 들中的 하나를 認定하다. 그 勇斷이 없다면 別室에서 中央委員會를 開催하여 決定해 주기 바란다. 두 團體를 認定한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반드시 制裁가 있어야 한다.

李適柱：朴委員長은 마땅히 分裂의 責任을 져야 한다.

朴明鎮：分裂責任은 지지 않는다. 두 團體를 認定하느냐 안하느냐 各道代議員의 意見을 바란다.

林榮俊：昨日 學會때 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統一機運이 濃厚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오늘와서 보니 昨日의 希望은 찾아볼 道理도 없다.

李有慶：個人的 私談을 確認할 수는 없다. 그런것을 公開하는 것은 沒常識하다는 말에 林榮俊이 이를 反駁하고 또 李有慶도 論駁하여 議場이 修羅場 같이 騷亂.

劉時仲(群山)：朝齒總會는 重大한 使命을 가지고 있다. 서울 代議員들은 混亂을 收拾하기 爲하여 退場할 것이다.

林榮俊(仁川)：서울, 京城兩齒科醫師會 代議員의 退場을 要望한다.

劉龍甲：나갈수 없다.

李敏五(群山)：兩團體退場을 바란다는 再三動議에 拍手로 再請이 있어서 서울, 京城兩側代議員退場.

林榮俊(仁川)：우리는 分裂을 願치 않는다. 한 團體로 統一되는 것을 바랄뿐이다.

金性度(順天)：會를 進行하기 爲해서 退場을 要求한 것이다.

崔海雲(大邱)：京城이니 서울이니 두 團體를 論할수 없다.

林澤龍(全州)：統一된 서울의 齒科醫師會가 地方을 리드하게 되는 것이다. 今後 分裂은 現實을 無視하는 것이다. 會則附則에 依해서 서울이 參席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再會가 統一해서 出席하기를 希望한다.

文箕玉：會때대로 한다면 加入을 먼저 決定하고 代議員은 來年부터 參席하게 될 것이다.

崔海雲(大邱)：서울의 兩齒科醫師會加入은 承認한 수 없으니 保留하자.

高漢復(全州)：討議事項에서 加入與否를 決定하고 다음 順序로 들어가자.

金昌圭(釜山)：서울, 京城을 超越하여 京畿道로서 參席하게 하자.

崔海雲, 盧基燮등도 金昌圭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採

擇되지 않고 金性度로부터 各道代表가 折衷案을 協議키 爲해 休會할 것을 動議, 林榮俊再請으로 下午 1時 朴明鎮委員長이 休會를 宣言하고 下午 1時 30分 續會하자 서울, 京城兩齒科醫師會에 對한 協議結果를

林澤龍：休會時間을 利用하여 各道에서 2名式의 代表가 參集協議한 것을 報告하였다. 서울, 京城兩齒科醫師會가 合하는 찬스를 만들어서 統一이 達成됨에 意見의 合致를 보았다. 開會劈頭부터 兩會是非에 對하여 討議한 것을 清算하고 大局의 立場에서 두 團體가 統一하도록 兩會代表의 意見을 들어보았으나 統一에 對한 妥協點을 發見치 못하였다. 統一이 達成되지 못하는 境遇에는 朝齒의 構成도 喪失됨으로 우리는 各其 地方으로 돌아가기로 可決하였다고 報告하자 拍手.

朴明鎮：統合하도록 道關係代表의 發言을 要望한다.

尹麒炳(全州)：서울, 京城으로 어찌해서 分離되었는가.

朴明鎮：그 內容은 잘모른다. 統合後 며칠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林榮俊(仁川)：統一은 分裂을 防止함에 있다.

李有慶：退場한 代議員이 傍聽할 수 있는가.

朴明鎮：退場을 宣言하였으니까 이 問題가 決定될때까지 傍聽할 수 없을 것이다.

林澤龍(全州)：兩會가 統一에 對한 意思를 自由롭게 發表하도록 함이 危機를 打開하게 되지 않을가.

李適柱：昨年 12月 22日 兩會는 統合하여 서울시 齒科醫師會로서 明朗한 發足を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統一은 自己네에 不利하다고 생각하는 分裂主動者인 安鍾書, 朴明鎮, 鄭保羅, 朴鎔德, 李有慶, 趙明鎬, 申仁澈 등이 再分裂을 한 것이다. 이 分裂責任을 糾彈하지 않고 統一을 말할 수 없다고 大聲으로 激憤滿面하여 부르짖고 卓上을 두드리자 崔海雲은 <돌이서 會하라>고 絶叫하면서 退場. (註：돌은 서울齒와 京城齒) 李適柱도 退場하여 崔海雲과 論爭을 벌이고 한편 議場은 過半數 退場으로 뒤죽 박죽이 되어 自然休會(2時半).

下午 3時 30分 續開하여 서울, 京城도 地方側合意로 參席했다.

李順伊：無條件統一은 안될 말이다. 얼킨 실을 풀자면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야 된다. 是非曲折을 糾明하지 않고 어떻게 完全한 解決을 볼 수 있는가(음소, 음소 소리).

梁承範：秩序있게 會를 進行하기 爲하여 臨時議長을 選出하자는 動議에 再請이 있자 尹麒炳(全州)이 議長은 地方서 選出하라는데 對해 文箕玉 同意하는 한편에서 林榮俊과 李有慶間에 서울齒, 京城齒代議員資格에 關하여 論戰을 展開, 小波瀾이 있는 다음 臨時議長에 林澤龍

(全州) 推薦을 拍手로 歡迎.

林澤龍議長: 議長의 그릇이 아니나 總意로 就任한다. 公平한 立場에서 處決하겠으니 圓滿協調을 바란다.

曹珣(光州): 會를 圓滿히 進行하기 爲하여 查察 3人을 選出하자는 動議를 採擇하고 尹麒炳은 查察도 地方에서 選出하자 하면서 查察은 婦人代議員이 適格이라고 方河晏을 推薦하니 <京城이요> 李順伊를 推薦한 즉 <서울이요>에 滿場爆笑, 結局 查察에 金昌圭, 盧基燮 閔榮俊등 選定.

盧基燮(木浦): 서울, 京城兩會는 京畿道名稱下에 參席할 것을 動議한다. 勿論 發言權, 決議權도 있어야 될 것이다.

田基培(群山): 全南代議員 動議에 再請한다.

吳孝善(水原): 京畿道代議員으로서 말한다. 서울, 京城兩會는 京畿道名稱이 아닌 다른 名稱으로 할 것을 改議한다.

尹麒炳(全州): 代議員의 資格審査할 것을 動議한다.

徐炳瑞: 中央委員으로서 尹代議員 動議에 再請한다.

李適柱: 朝齒役員으로서 尹代議員 動議에 再請한다.

結局 尹代議員의 第2改議를 舉手로 可決.

林澤龍議長: 代議員 資格審査의 方法은?

徐炳瑞: 서울市 齒科醫師會 代議員은 會則附則에 依해서 審査對象으로 論議되지 않을 것이다.

朴明鎮: 京城齒科醫師會 加入을 中央委員會에서 取消하였으나 正式加入하는 것을 受理하지 않을 수 없다.

李適柱: 朴委員長의 말은 越權의이다.

鄭保羅: 서울市 齒科醫師會는 正式으로 加入하지 않고 京城齒科醫師會는 書面으로 正式加入하였다.

文箕玉: 會則에 依한다면 中央委員會에서 認定하지 않은 것을 常務委員이 加入을 承認할 수 없을 것이다.

또다시 加入問題로 李適柱, 李有慶間에 論戰을 하여 議場이 騷亂해지자

崔海雲(大邱): 또 秩序가 紊亂하게 되니 痛嘆아니 할 수 없다. 過去는 어떻게됐든지 是非曲折은 그만두고 紳士의으로 無條件合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니간 無條件合作하든지 兩會가 退場하든지 流會를 하든지 3方法中 하나를 取하라.

朴成實(長項): 우리가 地方서 交通難을 무릅쓰고 올 적에는 寬大하고 圓滿한 朝齒의 모습을 期待하였더니 이처럼 混亂한 것은 遺憾이다. 서울, 京城을 莫論하고 京畿道代議員으로 發言權, 決議權을 賦與하라.

崔海雲: 먼저 말한대 對하여 議長의 勇斷을 要望한다

林澤龍議長: 混亂은 紳士로서 大汚點이다. 모든것을 清算하고 忍耐하여 握手하라.

文箕玉: 京城加入이란 違法行爲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덜어놓고 동굴게는 안될 것이다.

李元述(釜山): 시골서 와서 昨年에는 豫算案으로 時間을 虛費했고 이번에는 서울, 京城問題로 6時間이 걸리도록 解決되지 못하니 遺憾이다. 和睦한 가운데서도 萬事가 잘 進行될지 말지한 이때 會則만가지고 목이 닳도록 쉬도록 떠든다고 問題가 解決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두 團體가 合하라. 京城의 正副委員長, 서울의 正副委員長이 別室에서 和合工作하는 것이 좋겠다.

李適柱: 適切한 말이다. 朝鮮이 38線으로 兩斷된 것만 하여도 怨痛한데 統一된 齒科界를 混亂케 하는 分裂主動者들이 끝끝내 改心하지 않으니 憤痛하다.

朴成實(長項): 人間社會는 누구나 다 하나님 밑에서 살고있다. 京城, 서울로 分裂된 곳에는 善과 惡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義나, 누가 不義나를 糾明하지 않을 수 없다(拍手).

金性度(順天): 또다시 이자리에서 午前中의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斷>이 있을뿐이다(拍手).

崔義鍾: 同一地區內에는 오로지 하나의 齒科醫師會가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둘中 하나를 반드시 除外하지 않을 수 없다(拍手).

林澤龍議長: 全南代表, 慶北代表, 中央委員의 贊同으로 斷案을 내린다. 卽 서울, 京城은 京畿道齒科醫師會에 包攝해서 議事進行에 協力할 것이다. 이것이 統一의 目標로 向하는 길이다(拍手).

申仁澈: 分裂하고 合同하고 또 分裂한 것은 兩側이 固執을 세우는 까닭이다. 統一은 오직 彼此가 無條件으로 讓步하는데 있다. 미우나 고우나 다 齒科醫師다. 怨讐가 돼있지 않는 이상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겠는가. 今後 分裂않기로 하고 統一함이 至當하다(울소 울소).

고 눈물겨운 말이 있자 崔海雲은 <兩會代表는 統一의 握手를 하라>고 외치니 申仁澈(京齒)은 서슴치 않고 金溶瑸(서울齒) 앞에 가서 <統一합시다> 하며 내놓는 손을 金溶瑸이 꼭잡고 情다운 握手 이 劇의 場面에 滿場 우뢰같은 拍手. 그러나

金溶瑸: 오늘 分裂問題로 長時間을 虛費하여 地方 여러분에게 大端히 忒송하다. 元來 統一이 原則이기 때문에 分裂은 대단치 않았던 것이다. 發言權만 해도 系統的으로 서울市 齒科醫師會는 發言權이 있고 京城齒科醫師會는 없는 것이다. 包攝하는 意味로 우선 役員이 습지자, 統一은 少數가 多數에 따르게 된다는 말에 서울 齒側拍手, 京城側冷笑.

申仁澈: 少數黨이 多數黨에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完全한 統一은 어렵다. 하니 場內空氣 또다시

惡化形勢.

李適柱:統一은 母體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還元함으로써 成立된다.

林澤龍議長:少數,多數를 莫論하고 統一은 決定했으나 서울의 代議員도 發言權, 決議權이 있다.

李鳳珪:吸收統合은 하지 않겠다.

議場이 또 騷亂해지자 全州尹麒柄은 憤然히 일어서서 <統一이 可決되었음에도 不拘하고 또 그 問題로 떠드는 것은 地方代議員을 無視하는 것이니간 全北代議員의 한사람으로 不快하여 退場하겠다> 외치며 退場, 한편 林澤龍은 <統一의 任務를 遂行하였으므로 臨時議長의 자리를 물러가겠다>고 議長을 辭任한 後 分明치 못한 空氣를 內包한 채로 다음順序에 들어가 申仁澈總務로부터 開會宣言.

▲ 開會辭, 朴明鎭委員長: 열한시에 始作한 會가 下午 5時半에 겨우 開會宣言을 하였다는 예는 아마 무슨 會를 莫論하고 없었을 것이다. 時間關係上 開會辭는 그만 두겠다.

▲ 各部經過報告

總務部報告(申仁澈), 調查部報告(文昌周), 特別研究委員會報告(鄭保羅), 財務部報告(朴扶榮)가 있는 다음 學會報告는 趙昊衍의 中途缺席으로 省略.

金鍾玉: 資材部報告를 하라.

朴明鎭: 別로 할 것이 없다.

金鍾玉: 石膏問題, 敵產器械問題가 解決되지 못하였는데 報告할 것이 없다는 것은 責任回避다.

洪思根: 解放後 配給石膏를 暗賣한 金景福, 敵產器械를 賣買한 朴德平등의 問題를 解決하지 못한 報告를 하라.

柳邦燮: 資材部報告할 것이 있는데 없다는 것은 委員長의 잘못이 아닌가.

朴明鎭: 辭任하였으면 事務引繼할 것이다.

柳邦燮: 資材部委員을 辭任하였으나 保留되어 있기 때문에 引繼하지 않은 것이다. 고 말하면서 資材部報告를 한 後 <報告할 것이 이렇게 있음에도 不拘하고 없다고 委員長이 말하였으니 責任上 謝過하라>

朴明鎭: 잘못되었다.

▲ 醫齒: 一元化研究委員報告= 議案이 醫齒 一元化에 關한 件에서 報告하기로 하고

▲ 議長選舉= 口頭呼薦으로 林榮俊, 文策玉, 金昌圭 등을 推薦, 結局 林榮俊選出.

林榮俊議長: 一部反對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여러분의 推薦으로 議長에 就任하니 圓滿히 指導해 주기 바란다

▲ 現委員總辭任宣言= 現委員限界에 對하여 朴明鎭委員長, 林榮俊議長間에 質疑應答이 있는 다음

崔羲鍾: 委員全體를 改選할 必要가 있으니 局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結局 現委員全部의 總辭任受理를 林榮俊議長이 宣言하고 金然浩로부터 會則修正과 委員改選을 먼저하자는 動議에 再請이 있어서 이를 採擇한 後 書記에 崔羲鍾, 趙鋪起등 選出되어 就任.

▲ 議案 (다) 會則修正에 關한 件

金文祚로부터 會則修正案各條項을 朗讀한 뒤를 이어 修正은 委員에게 一任하자는 文策玉動議에 再請으로 可決하였는데 修正案各條項은 다음과 같다.

第3條 本會는 各道及 特別市에 一支部를 둠

第4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市에 둠

第6條 本會는 各道及 特別市支部會를 會員으로 함

第13條 本會에 次의 委員을 둠

委員長 1名, 副委員長 2名, 學會會長 1名, 學會員若干名, 特別研究委員會代表委員 1名, 特別研究委員若干名, 中央委員(各支部會 委員長及 道首席副會長, 學會長, 特別研究委員會代表委員 及 서울市에서 若干名) 中央常務委員 10名

第20條 本會의 委員選舉는 總會에서 無記名投票 或은 銓衡制로 하고 投票權은 出席議員 1人 1票에 限함.

第28條 各支部는 總會에 代議員을 派遣하기로 하고 其數는 支部會員 10名에 1名式으로 하고 10名未滿엔 代議員 1名으로 計算함 代議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함.

第34條 總會에 報告及 決議事項은 次와 如함

1. 各部報告
2. 收支豫算
3. 綱領及 會則改正
4. 當面問題討議事項
5. 定期委員改選(委員長, 副委員長, 學會長, 特別研究委員會代表委員, 中央委員) 常務委員은 委員長, 副委員長, 學會長, 特別研究委員會代表委員이 此를 選定함.

6. 醫療酬價의 標準額査定

7. 其他事項

第36條 中央委員會는 中央常務委員會의 諮問機關인 本會의 事業一切에 關한 方針을 決議하여 中央委員會에 提示함

第37條 中央常務委員會는 本會의 常務執行機關으로 常時 必要事項을 執行함.

但 施行에 있어서는 中央委員會에 報告함을 要함.

中央常務委員會의 重要執行事項은 次와 如함

1. 本會事業施行에 關한 件
2. 總會召集에 關한 件, 總會에 報告할 事項
3. 總會에 提出할 議案作成

4. 總會에서 決議할 事項이되 緊急을 要하는 事項審議
5. 其他委員長이 必要로 認定하는 事項

第39條 各支部會는 每年 12月 末日現在의 會員每人 當 正會員 3百圓, 特別會員 1百圓을 年度初로부터 2個月以內에 本會에 納付하기로 함.

▲ 議案 (자) 委員改選

各道代表 1名式, 中央서 4名, 前委員長 1名의 銓衡委員이 <委員長, 副委員長, 學會長, 研究委員會代表委員, 中央委員>을 選出할 것을 舉手可決하자

李適柱: 趙興洙는 代議員이 아닌데 舉手하였다. 허수아비 舉手を 認定할 수 없다.

趙興洙: 末安하다.

다시 起立可決로 前記銓衡制가 成立하였으나 서울齒,

京城의 對立意識이 또 表面化되려고 議場이 騷亂해지자 崔海雲(大邱): 京齒다, 서울齒다, 對立의 名稱을 달하는 會員을 退場시키자는 動議를 可決하고 下午 7時30分 林榮俊議長이 銓衡할 동안 休會할 것을 宣言. 同 8時20分 續會宣言하여 銓衡結果를 다음과 같이 發表하였다 (拍手).

委員長 金溶瑤, 副委員長 申仁澈, 同 林澤龍, 學會長 趙昊衍, 特別研究委員會代表委員 朴明鎭, 中央委員 各支部 委員長 及 同首席副委員長 李昌鎔, 李熙昌, 李東煥, 文箕玉, 安柄植, 洪思根, 鄭保羅, 林榮俊, 李有慶

끝으로 委員長, 副委員長의 就任人事후 明朝 9時續會할것과 今日休會를 宣言(下午 8時 50分)

社 屋 移 轉 案 內

今般 現代醫學社는 社屋을 아래 場所로 移轉 하였사오니 業務에 錯誤 없으시기 바라오며 倍前의 指導鞭撻 있으시기를 삼가 바라나이다.

現 代 醫 學 社

移轉場所 서울市 中區 仁峴洞 2街 135의 4 202號室

電話 (26) 8398